

## 평화를 만드는 한일청년 공동성명

2019 년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전환점이 된 해이다.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1 월 10 일부터 13 일에 오키나와에 모였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에서 오키나와전을 기억하고 전쟁기지가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이다.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철의 폭풍이라고 알려진 격렬한 지상전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해, 오키나와 사람의 4 명 중 1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비치리가마에서 강제집단사 당한 83 명의 처참한 비극과 생존자들의 가슴 아픈 증언을 들었다. 한반도에서 강제연행 당했던 군인들과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 곳에서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오키나와전이 끝났지만 오키나와에 평화는 오지 않았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거대한 미군기지가 만들어졌고, 반환 후에는 일본 본토에 있던 기지까지 이전되어 현재 일본 국토의 0.6%밖에 안 되는 오키나와에 미군기지의 70.6%가 집중되는 차별적 현실이 존재한다. 또한 미군 주둔 이후 끊임없이 여성 폭행·살해 사건이 계속되어왔다. 우리는 현도 104 호선을 찾아가 희생된 여성의 고통을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모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데나 기지·후텐마 기지 주변에서 격렬한 폭음과 추락의 위협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 현실은 정말 평화로운 것일까.

글래스보트를 통해 내려다 본 오우라만에는 아름다운 산호초가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이처럼 오키나와 사람들과 함께 살아 온 산호초와 바닷속 생물들을 죽이는 해노코 신기지 건설을 위한 매립 공사가 미일 양국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노코 신기지 건설에 반대해 연좌농성을 하고, 카누를 타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권력과 계속해서 싸워온 사람들에 의해 기지 건설은 저지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전하려는 사람들, 기지는 필요없다고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다.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고 평화롭지 않은 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일 청년은 자본주의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점령한 사회 속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살아갈 힘을 빼앗기고 있다. 가혹한 수험공부와 취업활동으로 경쟁을 강요당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취업을 해도 장시간·저임금·노동과 산업재해에 직면하며, 갑질과 성폭력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체의 무기를 없애고, 한국전쟁을 종결시켜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사회에 변화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과 일본의 우리가 힘을 합해 전쟁 없는, 가난 없는, 차별 없는, 핵·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우리의 힘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우리의 실천)

- 동아시아 군축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한 헌법 9 조 개헌 저지, 해노코 신기지 건설을 중단시키자. 한국 성주 소성리에 만들어진 THAAD 미사일 배치를 철회시키자. 제주도에 새로 조성하려는 공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자.
-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자.
- 제주도 강정마을에서의 평화대행진에 참가하자.
- 일본의 2019 지방선거에서, 우리 청년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사회 만들기를 요구하자.
- 청년들의 입장을 위해 일하는 청년의원 당선을 지원하고 청년지방의원을 각지에서 늘리자.
- 2019 년 7 월 27 일, 28 일에 행해지는 2019ZENKO in 도쿄에 참가하자.
- 5 월 3 일~6 일에 행해지는 부산·경주·성주를 둘러싼 한일참가단 in Korea 에 참가하자.
- 소수자에 대한 혐오과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시키자.
-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실현시키자.

2019 년 1 월 13 일  
한일청년참가단 in 오키나와 참가자 일동